

‘연승 도전’ 광주FC, 인천 넘어 파이널A권 간다

14일 안방서 K리그1 23라운드 광주→강릉→울산→광주 강행군
어수선한 상대들과 연속 맞대결 안혁주·문민서 등 젊은 피 주목

홍명보 감독과 갑작스런 이별이 예정되며 어수선한 분위기의 울산 HDFC를 잡은 광주FC가 이번에는 조성환 감독과 이별해 어수선한 분위기의 인천유나이티드와 만난다.

파이널A권(6위 이상) 진입을 위해 연승을 달리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14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2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고온다습의 환경 속 보름간 다섯 경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시점이다.

광주는 지난 10일 22라운드에서 울산을 잡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홍명보 감독이 돌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떠나게 되며 이별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1-0으로 이겨 울산에 4연승을 거두며 천적으로의 면모를 유지했다.

순위로 8위에서 7위로 재도약했다. 올 시즌 9승 1무 12패(승점 28)를 기록하면서 제주(8승 2무 12패·승점 26)를 제쳤고, 6위 서울(8승 6무 8패·승점 30)을 바짝 추격했다.



광주FC가 오는 14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 FC 선수단이 지난 10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FC와 2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뒤 팬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보름간 다섯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요소다. 가뜰이나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 광주에서 강릉, 울산을 거쳐 다시 광주로 약 1077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는 젊은 피들에게 기대를 건다. 올 시즌 주요 22세 이하 자원으로 활약 중인

문민서와 최근 전력에 합세한 안혁주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떠난 엄지성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문민서와 안혁주는 22세 이하 자원답게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안혁주는 엄지성이 이적 과정에서 등번호 7번을 물려

줄 후계자로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이정호 감독도 문민서와 안혁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감독은 울산전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안혁주가 측면에 별려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하자고 했는데 충실하게 이행했다”며 꼭 집어 칭찬했다.

내측 인대 파열을 털고 돌아온 이희균

도 전력에 보탬이 되고 있다. 3개월여 이탈이 예상됐던 이희균은 약 1개월 만인 지난달 말 실전에 복귀해 줄곧 교체 투입되며 특급 조커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난 라운드 울산전에서는 하프타임에 안혁주를 대신해 교체 투입돼 후반 21분 최경복과 콤비 플레이에 이은 정확한 마무리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 경기의 선제골 겸 결승골이자 이희균의 시즌 5호 득점이었다.

인천은 최근 분위기가 무겁다. 현재 4승 10무 8패(승점 22)로 9위에 머물러 있는데 수장인 조성환 감독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로 인해 지난 라운드 대구전부터 변재섭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 맡고 있다.

광주는 올 시즌 인천에 1무 1패로 약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특히 이날 경기에 앞서 이정호 감독과 허윤의 K리그 100경기 출장 기념식이 열리는 만큼 승리로 선물을 안기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날 경기 하프타임에는 그룹 ‘노라조’가 광주FC에 헌정하는 응원가 두 곡을 발표하는 특별 공연이 예정돼 있다. 노라조 멤버 조빈은 전남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곡은 광주FC를 위한 노래고 한 곡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응원을 보내는 서포터스 빛고을에 선물을 하는 노래”라고 밝힌 바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대투수’ 양현종, 던졌다 하면 최초

KBO 최초 400경기 선발 등판
11시즌 연속 100이닝 달성도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KBO 리그 최초로 400경기 선발 등판하는 대기록을 썼다. 이와 함께 11시즌 연속 100이닝 기록도 달성하면서 선동열과 이종범에 이어 세 번째 영구결번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1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1차전에서 400번째 선발 등판을 소화했다. 프로 데뷔 후 18시즌 만에 이뤄낸 위업이다. 앞서 양현종은 직전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 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시즌 8차전에서는 KBO 리그 통산 55번째 500경기 출장 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2007년 한국 프로 야구 신인선수 지명 회의 2차 1라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데뷔 첫해 6경기 선발 등판을 시작으로 호랑이 군단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아 왔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경기 전후로 선발 등판을 소화하며 꾸준함을 과시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 시즌 연속 30경기 이상을 선발로 책임지며 토종 에이스의 역할을 해냈다.

양현종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400경기 선발 등판의 대기록에도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다. 5이닝 동안 무사사구 투구를 펼치며 1실점으로 선방했으나 마운드를 내려갈 때까지 타선이 침묵했다. 타선이 9회초 극적인 동점을 이룬 뒤 10회초 연장 승부 끝에 역전승을 거두며 패전을 면한 것이 위안이었다.

또 양현종은 이날 경기 4회말 선두타자 오스틴 딘을 라인드라이브로 직접 처리하며 올 시즌 100이닝 짝을 채웠다. 이는 KBO 리그 역대 세 번째 11시즌 연속 100이닝 투구 기록이다.

한편 양현종은 올 시즌 KBO 리그 최초 10시즌 연속 160이닝 투구와 KBO 리그 3호 10시즌 연속 100탈삼진, KBO 리그 최다 탈삼진(현재 송진우 2048탈삼진) 등 기록에도 도전하고 있다.

한규빈 기자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지난 1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1차전에 선발 등판해 공을 넘겨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전남 육상, 전국육상경기대회서 무더기 메달

금 18·은 8·동 7 등 총 33개
정해진 3관왕·서예지 2관왕

전남 육상 선수들이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선전하며 메달을 무더기로 수확했다.

11일 전남육상연맹에 따르면 전남 육상선수단은 지난 6~9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 18개, 은 8개, 동 7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중등부에서 정해진(전남체중 3년)이 100m(12초77), 200m(26초19)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윤재리·김이랑·김류진(이상 전남체중)과 이어 달린 4x400m혼합계주(3분51초36)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김태빈(목포하당중 2)은 포환던지기

(13m07)에서, 이하은(광양백운중 2)은 멀리뛰기(5m09), 정현담(전남체중 3)은 세단뛰기(13m22)에서 금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고등부에서는 ‘도약종목 유망주’ 서예지(광양하이텍고 1)가 멀리뛰기(5m41), 세단뛰기(11m88)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이은빈(전남체고 3)은 100m(12초

28)에서, 최지선(전남체고 3)이 400m에서 각각 금빛 질주를 펼쳤다.

또 문혜솔(전남체고 2)은 포환던지기(13m55)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일반부에서는 남보하나(진도군청)가 3000m장애물 경기에서 10분19초89 기록으로 개인 최고기록(중전 10분21초15) 경신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고, 한국 역대 3위 기록을 세웠다.

이아영(광양시청)은 200m 금메달(24초46)을, 김동욱(나주시청)이 남자 1500m 금메달을, 신소망(이상 나주시

청)이 여자 1500m 금메달을 수확했다.

‘포환던지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 정일우(여수시청)는 17m54 기록으로 금메달을, 해머던지기의 박서진(목포시청)이 60m69로 금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김용주 전남육상연맹회장은 “전남 육상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쳐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대회 상승세를 유지해 오는 10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기자